

「이복님 원장 초청 2009 콩고 연합성회」 성황리에 마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전해진 새 희망의 빛



성결 복음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난, 질병, 내전으로 고통받는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 주었다.

우리 교회 부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초청, '2009 콩고 연합성회'가 4월 25, 26일 양일간 수도 킨샤사에 위치한 스파드 데 마르피르(순교자 기념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첫날, 이복님 원장은 이재록 목사의 사모로서 36년 동안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살아온 간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마 1:21)'라는 제목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출 15:26)'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설교 후 이복님 원장은 많은 인파 때문에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기도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 12)으로 단에서 기도



해 주었다. 이어 성경상의 역사를 재현한 듯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걷는 성경의 역사가 이어졌고, 각종 암, 말라리아, 간질,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의 지원 속에 이뤄진 이번 성회는 콩고 국영 TV RTN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 속에 70만여 명이 운집한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 사상 최대의 성회, '이재록 목사 초청 2009 콩고 연합대성회'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이 나라 국민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다.

어버이 주일 기념행사 열려



권사회 연합회에서는 5월 10일 2부 대예배 후, 본당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을 초청해 어버이 주일 기념 행사를 가졌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는 잠언 16장 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신앙생활로 더욱 건강하고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했다.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 새렘국악선교단과 예술선교단의 공연, 권사회 연합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안겨 드리기에 충분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아랍어판 아마존닷컴 시판



이재록 목사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아랍어판(이집트 프리덤 출판사)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시판 중이다.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아랍어 사용자를 찾아 간다.

이재록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책은 그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책자로도 각광을 받았다.

1987년 4월 17일 발행 뒤 스테디셀러로서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러시아어, 타밀어 등 14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칼럼 | 진정한 힘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면, 각종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소경, 농아 등을 온전케 하셨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심에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와 때로는 잠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했지만 어린이 하나까지도 섬기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여 진리의 사람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변화케 하는 힘은 큰 권세나 위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글 이재록 목사
중앙일보 연재 '길'에서

값진 선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68)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것은 성령받기 전의 일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좇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좇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소망,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1. 첫 번째 값진 선물, 구원의 은혜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전도를 거부하고 물리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지요.

지난날의 모든 죄도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사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정결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원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한 인생,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을 너무도 값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까지 갖추었다면,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해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 두 번째 값진 선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과 뜻이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딤후 3:16). 따라서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며, 세상의 지식과 이론으로 풀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이 많아 열심히 부흥성회를 찾아다니며 목사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여러 주석 책을 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주석 책에는 성경의 내용을 신화 취급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해 믿음을 뺏는 설명들이 있었지요.

그러던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두 번 했는데, 3년 동안 천사가 성경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는 것 같았고, ‘나도 믿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금식도 무수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부흥성회를 다녔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7년의 무수한 기도가 쌓이자, 주님께서는 난해 구절을 하나씩 풀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성령의 열매’, ‘팔복’, ‘영적인 사랑’, ‘영혼육’ 등 보화 같은 말씀들을 설교 테이프, 인터넷으로,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방송으로, 책자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를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

리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라도, 영으로 양식 삼은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착하게, 입술의 말이 곱게, 행실이 단정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요삼 2절)는 영적인 공식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 보다가 변개하지 말고,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3. 세 번째 값진 선물, 권능의 역사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이처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선포하는 복음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으로 함께 역사하시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권능의 역사는 단순한 병 고침의 차원이 아닙니다. 각종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비되고 퇴화된 신체 각 기관의 세포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의 세력도 능히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지요. 직접 기도 받지 못했다 해도,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안 단물을 통해, 손수건 기도(행 19:11, 12)를 통해 언제든 믿음으로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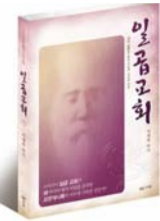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도 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도 진정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여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좌절하고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없는 권능을 값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권능의 체험자요 증인이 되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있는 영적 장수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I 이재록 목사 저서 I

일곱교회



사도 요한을 통한 주님 사랑의 편지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왜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간직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기록된 것일까? 일곱 별의 비밀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희한한 능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각색 질병을 치료하고 희한한 능을 나타낸 사도 바울. 그는 큰 권능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 갖가지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경과 권능 시리즈 입문편 1

간혹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성경과 권능 시리즈 실천편 4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과 산천초목, 사람을 지어낸... 근본의 소리. 근본의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법도



주제설교모음집 십계명 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된 복을 좇는 자



주제설교모음집 팔복 편

오늘도 갈릴리의 바람을 타고 고즈넉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참된 복을 깨달아 영생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주제설교모음집 열계양 편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재앙과 연단, 시험환난 속에 담겨진 커다란 비밀과 면면한 하나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온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나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했다. 하지만 2003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실패와 좌절은 나와 상관없이 있다고 굳게 믿던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곧 술에 빠져들고, 알코올 중독에 자꾸 손이 떨리는 수전증까지 찾아왔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집밖을 나돌았다.

아내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참다못한 아내는 전남 광주에 있는 처갓집에 가 있곤 했다. 나는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폐인이 되어 갔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과 함께 내 곁을 떠났다.

무일푼으로 아무 희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후회가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었다.

“여보... 나야... 잘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당신도 잘 지냈어요?”

절망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내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다.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 동광주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내는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며 연락을 기다렸다는 게 아닌가.

갈 곳도, 아무 희망도 없던 나는 그 길로 광주에 내려가 처갓집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했다. 서울 본 교회와 동시 화상 예배로 듣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내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매일 기도하며 욕심에 이끌려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지난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즉시 술 담배를 끊고 세상 친구들을 멀리했다. 예전엔 짐같이 여겨지던 가족이 사랑스럽기만 했다. 어느 덧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싶다’는 소망이 싹텄다. 변변한 직장 없이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물질 어려움도 왔지만 나 같은 사람을 바꿔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어느새 알코올 중독 증세와 수전증도 온데간데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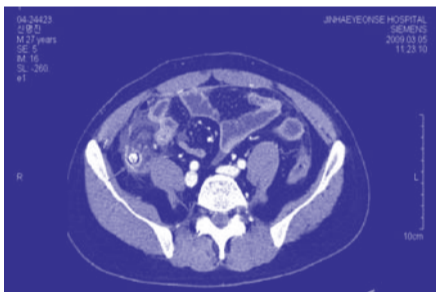
2007년 7월, 신한생명(주) 서울중앙인수 광주 지점에 입사했다. 나는 내 편의 이익보다는 회사와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정도를 걸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큰 돈 작든 순종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물질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창진 집사 (동광주만민교회 남선교회 부회장)

급성 복막염을 기도로 치료받아

2009년 3월 3일 아침, 갑자기 속이 매우 더부룩한 게 심상치 않았다.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 애써 토해 보려고 했지만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급성 충수돌기염이 심하고 주위에 농양이 고여 있는 소견 (기도받기 전)

급기야 통증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황. 그날 저녁, 갑자기 복부가 터지는 듯 아팠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음성전화사서함 환자기도를 받고 무안 단물을 마신 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단잠을 잘 수 있었다.

3월 5일, 병원 검진 결과 ‘급성 복막염’이었다. 의사는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3월 6일, 서울에 올라와 당회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기도를 받았다. 그 뒤 복부가 편해지면서 허리가 펴졌으며, 쾌변을 보고 초록색 물 같은 것을 게워냈다. 그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틀 후부터는 미음을 조금씩 먹을 수 있었고 점차 몸이 회복되었다.

나는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통회자복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만큼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셨고, 연이어 나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복부가 당기는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다.

4월 10일, 의사는 맹장과 대장 사이에 생긴 작은 구멍에 돌이 막혀 충수돌기가 터졌는데 지금은 돌도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젊어서 그런지, 기도의 힘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수술도 하지 않고 급성 복막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신명진 형제 (마산만민성결교회)



“공부요? 하나님 안에 그 비결이 있어요”



새대구만민교회에 다니는 김수연(대구 범일중학교 2학년) 학생은 요즘 수업시간이 즐겁고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특히 영어와 수학은 20-30점대였지요.”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세상에 물 들어가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회장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뒤 수업 시간에 비장한 각오로 임했어요. 그래도 점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기도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 또한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끊고 대신 복습하는 시간을 늘렸다.

지난 3월 31일, 우등생을 마음에 품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집중력이 현격히 좋아지고 그토록 어렵던 과목이 술술 풀리더니 매일 보는 쪽지 시험 성적이 90점 이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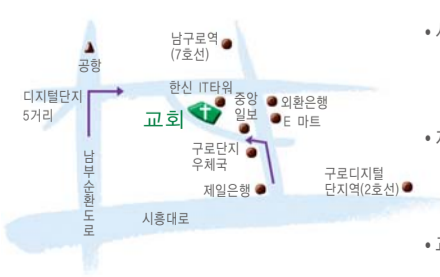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난달 중간고사에서는 낙제 과목이었던 영어, 수학에서 각각 90점, 95점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틈만 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신기해 한다는 수연이는 “많은 학생이 자신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 오후 1:30
새벽예배	새벽 5:00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일본

이제 주님을 만나 행복해요



삶의 목표를 잃어 버린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하고 있었습니 다. 이때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는

2004년 5월 23일, 이다 만민교회 양 떼가 되었지요. 그 뒤, 생명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와 참 평안을 주었고 살아갈 힘과 천국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7월,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2년 전 유방암 수술 당시 암세포 전이를 막기 위해 임파절을 잘라내어 팔을 위로 올릴 수 없는 후유증을 앓고 있었지요. 그런데 유승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손수건 기도

(행 19:11, 12)를 받을 때 제 몸이 뜨거워졌고,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9월 손수건 집회 때에는 과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었고, 백내장과 저혈압도 손수건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씩 치료되었지요.

저는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든 일을 내 편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일을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 이제는 상대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08년 1월경, 구역예배 때 쓸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서둘러 물건을 산 뒤 주차장 중간쯤 왔을 때였지요. 대형차가 가

려서 막 주차장을 나서는 경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차는 오토바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차 안에는 갓난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2009년 2월에는 무안 단물을 통해 꽃가루 알레르기가 치료되었고, 시금치 재배로 신기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작년 11월, 집 앞 텃밭과 그와 동일한 흙을 사용한 화단에 시금치를 각각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이 되어도 텃밭의 시금치는 거의 자라지 않았지요. 스프레이로 무안 단물을 텃밭에 있는 시금치 뿌리 부분과 앞부분에 두 차례 뿌렸습니다. 지난 3월 말, 시금치를 살펴보니 화단의 시금치보다 텃밭의 시금치가 무려 4배 정도 길고 더 컸습니다.

이러한 체험들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리모토 타이코 집사 (이다 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9663-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교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파키스탄

회교국 크리스천의 삶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다

파키스탄은 정부군과 탈레반(극단 이슬람주의 정치·무장 조직)의 치열한 전투로 전국이 불안합니다. 또한 잦은 테러 발생과 가난, 질병, 기아 등으로 평화와 안식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 와중에 파키스탄 크리스천에게 희망의 등불이 비추었습니다.

2000년 10월, 라호르 시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 대성회'는 이슬람 국가에서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컸습니다. 연인원 30만 명이 참석한 회교권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초교파 대규모 성회였지요. 여기에 수많은 회교도가 직접 권능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개종하는 감동적인 대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 뒤, 파키스탄 목회자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 길태식 목사님(대전만민교회 담임)을 강사로 성결 복음을 전하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

월슨 존길 목사 (라호르 만민교회)

지난 4월에도 15일부터 26일까지 라호르, 아자드 캐슈미르, 카라치 지역을 순회하며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누이의 권유로 두바이에서부터 참석한 한 형제는 허리 디스크를 깨끗이 치료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아홉 살 난 아이가 걷게 되며, 잘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등 치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성결 복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손수건 기도를 통한 권능의 역사는 파키스탄 크리스천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지요. 이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통신/ 벨기에 노현숙 선교사



1517년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항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뤄지면서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서 번역이 이뤄지는 등 사회와 역사가 바뀌고 있었던 많은 것이 살아났다. 그러기에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전파의 역사이며, '기독교 역사'는 유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미전도 지역으로 파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 또한 유럽이다. 유럽의 전경을 그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광장이 있고 이곳에서 사방으로 길들이 뻗어 나가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지금은 그 크고 화려한 외형의 교회 안에 겨우 3, 4명만이 주일에 찾아온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되었다. 선정적인 장

유럽의 기독교 현실과 성결 복음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뒤, 기독교는 중세 유럽에 전파되고 발전을 이뤘다. 1517년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항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뤄지면서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서 번역이 이뤄지는 등 사회와 역사가 바뀌고 있었던 많은 것이 살아났다. 그러기에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전파의 역사이며, '기독교 역사'는 유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미전도 지역으로 파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 또한 유럽이다. 유럽의 전경을 그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광장이 있고 이곳에서 사방으로 길들이 뻗어 나가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지금은 그 크고 화려한 외형의 교회 안에 겨우 3, 4명만이 주일에 찾아온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되었다. 선정적인 장

면들로 가득한 대중매체들,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화정책으로 이슬람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탄 숭배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황무지가 된 유럽에 성결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독일 연합대성회'를 통해 선포된 성결 복음과 권능 사역은 잠들어 있던 교회들을 깨웠고, 많은 청년이 교회로 돌아오게 했다. 그동안 세속에 물든 젊은이들이 기도와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시공을 초월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 온다.

이에 지교회 및 협력교회가 늘어나면서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 세미나(강사 기 다비츠 목사)는 부흥의 도화선이다. 교역자들은 성결 복음으로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진심의 고백을 한다.